소요산과 원효대사 이야기

權 琪 奉
주간

지난 8월 16일, 우리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월례산행일인 셋째 토요일에 40여 회원을 따라가 경기도 동두천시 북쪽 교외에 있는 소요산逍遙山을 요산樂山하였다.

서화담徐花潭 · 양봉래楊蓬萊와 김매월당金梅月堂이 자주 찾아 오르내렸다 해서 더욱 이름난 이 산은 그만큼 경관이 빼어나고 많은 산꾼이 사철 산행을 즐겨 마지 않는 명소이다. 그리 험준한 악산惡山이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만만치도 않은 게 소요산이다. 해발 오륙백 미터의 주능선은 하중상下中上의 3개 백운대白雲臺로 시작하여 나한대羅漢臺 · 의상대義湘臺 · 공주봉公主峰의 6개 봉우리가 말발굽 형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를 종주縱走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요산의 등산 코스이다.

잘 알려진 국민관광지로서 ‘ 경기의 소금강小金剛 ’이라는 별칭이 붙은만큼 이 산에 계곡과 폭포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원효대사元曉大師의 명찰 자재암自在庵까지의 산행이라면 노약자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산책길이라 할 수 있다. 자재암에서부터는 등산로가 이른바‘ 치고 올라가는 깔딱고개 ’로서 젊은이의 체력도 시험케하며 하백운대까지 이어지지만 이로부터는 능선을 타고 봉우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완만한 경사의 산행을 즐길 수가 있다. 겨울의 설경도 빼어나지만 이 산은 이른봄 진달래가 필 무렵부터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까지가 특히 아름답다.

이곳의 명찰 자재암은 원효가 창건했다는데 일찍이 그가 이곳에서 관음보살觀音菩薩을 만나 그 수행력을 인정받았다는 설화가 있다. 원효가 요석공주瑤石公主와의 인연으로 실계失戒를 한 후에 수행일념을 새롭게 하여 인적이 두절된 심산유곡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이곳에 이르러 초막을 짓고 용맹정진勇猛精進을 시작하였다. 비가 오는 어느날 심야에 약초를 캐다 길을 잃은 아녀자로 화현化現한 관음보살이 초막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다. 이에 원효가‘ 마음이 생한즉 가지가지의 법이 생기는 것이요, 마음이 멸한즉 온갖 법이 없어지나니(심생즉종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 심멸즉종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 내게는 자재무애自在無碍의 참 도와 수행의 힘이 있노라 ’ 하는 법문法門을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미소지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원효는 물론 관세음이 자기를 시험했음을 알았고 이로부터 더욱 정진하여 이곳에 정사精舍를 짓고 후학을 교계敎誡하였는데 이처럼 원효가 관음을 친견親見하고 자재무애의 수행을 쌓았다 하여 정사 이름을 자재암이라 했다는 것이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1번지에 있는 자재암은 동두천시 향토유적 8호로 지정되어 있고 신라 선덕여왕 14년, 645년에 원효가 개산開山하였다. 이때 산 이름을 소요逍遙로, 절 이름을 자재自在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후 3백여년이 지난 고려 광종 25년, 974년에 왕명으로 각규覺圭가 중창하고, 의종 7년, 753년에 화재를 당해 이듬해 각령覺靈이 대웅전大雄殿과 요사寮舍 일부를 중건하였다. 그뒤 조선 고종 9년, 1872년에 원공圓空과 제암화상濟巖和尙이 퇴락한 이 사찰을 44간으로 복원하고 영원사靈原寺라 이름했다. 순종 원년, 1907년에는 이곳이 의병의 근거지가 되어 일군日軍의 공격으로 불탔고, 제암과 그 제자 성파性坡가 이를 복원하여 본래의 이름 자재암으로 돌아갔다. 경내와 주변에는 추담秋潭의 사리탑과 속리교俗離橋 · 세심교洗心橋 등이 있다. 원효가 수행하는 동안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薛聰을 데리고 와 머물렀다는 요석공주 별궁지別宮址와 사자암지獅子庵址 · 소요사지逍遙寺址 · 현암지玄庵址 · 원효사지元曉寺址와 조선 태조의 행궁지行宮址가 있다고 하나 그 위치는 알 수가 없고 그밖에 금송굴金松窟 · 청량폭포淸凉瀑布 · 선녀탕仙女湯 등이 있어 경관을 더해주고 있다.

원효는 신라 진평왕 39년, 617년에 지금의 경산시慶山市 자인慈仁 땅 불지촌佛地村에서 났다. 내마奈麻 설담날薛談捺 내외가 아들이 없었는데 어느날 밤 아내가 큰 별이 하늘에서 그 품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잉태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밤골이란 곳에서 갑자기 산기가 발동해 남아를 분만했는데 아이 주변에 오색 구름이 자욱히 서렸다. 사람들이 이 이적을 기려 아이 이름을 서당誓幢이라 짓고 그 태어난 자리도 금당金堂이라 하고 거기에 있는 밤나무를 사라수裟羅樹라 불렀다. 영특하여 스승 없이도 혼자 깨우치던 서당은 화랑花郞의 무리에 들었다가 출가出家를 결심하고 자기 집을 헐어 초개사初開寺라는 절을 짓고 이름도 법명法名 원효元曉로 하고 나서는 황룡사皇龍寺에 승려로 들어가 각종 불전을 섭렵하여 수도에 정진하였다.

어느날 원효는 의상義湘이 있는 양양襄陽의 낙산사落山寺를 찾아가다가 들녘에서 벼를 베는 아낙을 보고 농을 걸어 ‘ 배고픈 중에게 그 벼라도 좀 주시려오? ’ 하니 ‘ 농사가 잘 안되어 드릴 게 없소이다 ’ 하므로 무안하여 껄걸 웃고 떠나왔다. 장난을 즐기는 원효가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빨래를 하므로 마실 물을 청했다. 여인이 빨래를 담은 함지박의 물을 떠주자 원효는 깜짝 놀라 이를 쏟아 버리고 깨끗한 물을 새로 떠 마셨다. 그때 소나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올려다보니 파랑새 한 마리가 ‘ 스님은 그만두시오 ’ 하고 날아가 버렸다. 둘러보니 소나무 아래 붉은 신이 한 짝만 놓여 있었다. 그 신짝을 주워 들고 어두울녘에 낙산사에 도착해 벽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속 소나무가지에 똑같은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고 나무 아래 관세음이 서 있는데 붉은 신을 한 짝만 신고 있었다. 관세음의 얼굴을 보니 낮에 마주쳤던, 벼 베던 여인과 빨래하던 여인과 똑같았다. 원효는 놀라 깨우치며 중이라고 일하지 않고 남의 추수를 거저 얻으려 한 것이 잘못이며 중이면서 더럽고 깨끗한 것을 마음에 구별해 두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잊었음을 뉘우쳤다. 원효는 이미 보덕普德을 스승삼고 원광圓光과 자장慈藏에게서도 배운 바였으나 이렇게 부족하였다. 그래서 의상을 만나서는 좁은 신라를 떠나 너른 당唐나라에 가서 배우자고 하여 둘이 유학길을 떠났다. 이때가 그 나이 34세 무렵인데 육로로 고구려를 통과하다가 도중에 고구려군에 잡혀 귀환하였다. 그 10년 뒤 다시 의상과 함께 이번에는 바다로 당나라에 가기 위해 당성唐城, 지금의 경기도 남양南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종일을 걷다가 산중에서 날이 저물어 더 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 동굴을 찾아들어가 잠에 떨어지게 되었고 잠결에 목이 타던 원효는 머리맡을 더듬다가 바가지에 괸 물을 마시고 다시 잠에 빠졌다.

이튿날 깨어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의 머리이고 마신 것은 거기에 고인 물이었다. 원효가 구역질을 하며 토하려 하자 까닭을 물은 의상이 말했다.

“ 물을 마신 것은 간밤인데 어째서 지금 구역질을 하는가? 구역질을 하려거든 지난밤에 했어야지. ”

이에 원효는 구역질을 멈추고 크게 깨우쳤다. ‘ 해골물은 그대로인데 어째서 간밤은 그토록 시원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토악질이 나는가?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해골물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오직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은 원효는 의상에게 ‘ 나는 굳이 당나라에 갈 일이 없겠네. 이제 도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네 ’하고 발길을 돌려 서로 작별하였다. 이후로 원효는 이상한 땡초가 되어 기이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였다. 중의 행색에 술을 마시고 고기 안주를 씹으며 주모의 손을 잡고 장난을 쳤다. 그런 파계破戒를 비난하고 꾸짖으면 원효는 껄걸 웃으며 ‘ 나는 술을 마시고 취할 때도 부처 생각을 할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처한테 기도하는 동안에도 재물 생각, 자식 생각 등 욕심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니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허허허… ’하고 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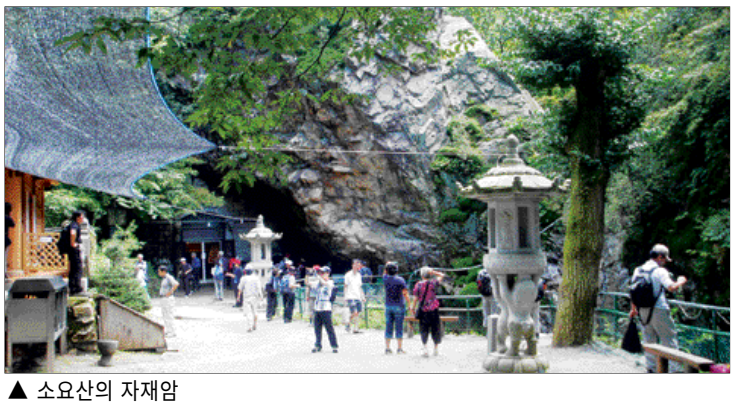
그러면서 태종무열왕의 둘째 딸로 남편을 백제와의 싸움에서 잃어 홀로 있는 요석공주와 정분을 일으켜 홍유후弘儒侯 설총을 낳았다. 이후 원효는 더욱 큰 사상가로 전환하여 스스로 복성거사卜性居士 또는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칭하고 속인행세를 하며 중생의 교화에 힘썼다. 광대가 이상한 모양의 표주박을 가지고 춤추는 것을 보고는 같은 복장으로 불교의 이치를 노래로 만들어 유포시키니 대중이 잘 알 수가 있었다. 그 줄거리는 화엄경華嚴經의 이치를 푼 것으로 ‘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의 편함을 얻느니라 ’하는 내용이며 이를 ‘ 무애가無导歌 ’라 하였다. 혹은 돌에 글을 새기고 다니기도 하고 화엄경의 주소註疏를 지어 강의하는가 하면 가야금을 들고 사당에가 음악을 즐기기도 하였다. 여염에 유숙하다가 명산대천에서 좌선坐禪하고 한날한시에 여러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온 천지를 찾아도 종적이 없었다. 이러한 원효에게는 일화도 많았다.

한번은 궁궐에서 왕비가 큰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였다. 진평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명약을 구해 오게 했다. 사신이 당나라에 가 한 노인을 만나 아직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이란 책을 받았다.‘ 이 책을 세상에 퍼지게 하면 왕비는 곧 나을 것이오 ’ 하는 말을 하며 노인은 사신의 다리 살을 갈라 찢고 그속에 불경을 넣어 감추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 이 불경을 원효에게 해석해 달래서 퍼치시오 ’ 하였다. 신라로 돌아온 사신은 진평왕에게 금강삼매경을 바쳤고 왕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 원효를 찾아오게 하였다. 원효는 왕명을 받은 신하가 오는 것을 알고 소를 타고 마중나와 있다가 불경을 보고는 소를 타고 이동하는 자세로 붓을 들어 내용을 풀이해 적었다. 이윽고 원효는 이 불경을 황룡사에서 설법했고, 법회에는 수천명이 모였다. 그리고 왕비의 병은 나았다.

하루는 원효가 점심을 먹다가 밖으로 나가 입속의 물을 서쪽으로 뿜었다. 서쪽으로 몇십리 밖에 있던 큰 절에서 불이 났는데 이때 소나기가 쏟아져 큰불이 잡혔다. 그런데 그 소나기에 밥알이 섞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나라의 어떤 큰 절에서 승려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커다란 나무접시가 나타나 빙글빙글 돌았다. 법당문으로 이를 본 승려들이 신기하여 모두 마당으로 달려나오니 법당의 대들보가 부러지며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다. 마당가에 떨어진 나무접시를 집어들고 살펴보니 거기에‘ 신라의 원효가 이 나무접시를 던져 중생을 구하노라 ’라고 새겨져 있었다.

불교는 크게 소승과 대승으로 나눈다. 소승은 자기 마음을 닦아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보다 속세를 떠나 수도함에 비중을 둔다. 대승은 자기수양도 중하지만 이웃과 제가 속한 사회를 돕는 것을 중시한다. 우리 불교는 대승의 성격이 강한데 그러한 대승불교를 빛낸 이가 원효와 의상이다. 두 사람은 불교를 함께 공부한 도반道伴이다. 그러나 둘의 출신과 생각은 조금 달랐다. 의상은 신라 서울의 귀족 출신이지만 원효는 지방의 평민에 가까운 하급 귀족 출신이었다. 의상은 불경을 읽으며 부처의 가르침을 익히는 것을 중시한 반면 원효는 정신을 집중하며 마음을 닦는 것을 중시했다. 당시에는 귀족의 지원을 많이 받은 의상이 더 인정을 받았다. 후세인 오늘날은 원효가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더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 소요산의 자재암